

지역 소식통

김제시,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 시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8,237가구 9,842명에게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총 44억을 지원한다.

오는 20일부터 김산동, 신평동, 교월동, 요촌동, 금구면, 금산면, 용지면 등 7개 지역 배부를 시작으로 12개 읍·면 지역은 23일부터 지급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위촉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배부 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상품권의 빠른 소비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 소외 이웃에 한돈전달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부장 강재혁)는 코로나19 위기가속에 동참하기 위해 돼지고기 2,400kg(1,54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지정기탁했다.

김제시는 기증받은 물품은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재혁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에서는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매년 뜻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생강 경관농업으로 재탄생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생강' 대중에게 알릴터 봉동읍 신성리 3천평에 토종생강 파종·경관 조성 계획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이 주민들 곁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16일 완주군은 봉동읍 신성리 4983㎡(약 3000평) 옛 소싸움 부지에 토종생강을 파종했다.

지정된 완주생강을 경관농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생강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군은 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부지를 정비하고 복토 및 생강재배에 적합한 토양개선을 추진해왔다.



## 김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억8천만원 지급

### 아동수당대상자 2700여명에 김제사랑상품권 40만원권 지급 완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 2,702명에게 10억 8천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양육가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으로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체실정에 맞는 상품권 지급일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상품권 줄서기에 따른 대면접촉 최소화 방안으로 신청서를 동봉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 게시, 요일별·시간대별 개별문자 발송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청 즉시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아동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중신청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관내 2,3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사용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어 그간 시민들의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경관조성지는 완주군과 (사)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대표 이용국)에서 공동경작단을 조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옛 명성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과 연계해 탐방로를 조성하고 교육과 홍보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 관리와 브랜드키치 향상을 위해 생강 부산물을 활용한 한지개발, 생강굴 복원정비, 능가 시범재배지 8000㎡ 조성, 교육, 브랜드개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 관리는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해야 하고 경관 농업 조성은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며 "사단법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 김제지역 5개로타리클럽, 결식노인 30명에게 영양식 지원

김제지역 5개로타리클럽(김제, 지평선, 성산, 민경, 단야)은 16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30명의 결식 노인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영양식품을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이 어려워 식료품 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마련되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30명을 선정하여 주 1회 영양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결식노인 영양식 지원사업은 김제지역자활센터(장대운도사)가 영양식을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영양식을 전달함으로써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김제로타리클럽에서는 2019년 500만원의 후원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로타리클럽(회장 신준옥)은 최근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장애인에게 마스크 700개를 전달했다.

## 근로 장애인에 마스크 후원

### 김제지평선로타리클럽,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에 마스크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지평선로타리클럽(회장 신준옥)은 최근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마스크 700개를 후원했다.

김제지평선로타리 클럽은 2017년부터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협약을 맺고 봉사활동과 매년 설, 추석 명절 물품나눔으로 꾸준한 지역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신준옥 회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 가운데 최근 김

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부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A)등급을 평가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이며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호열 원장은 "지원 물품은 근로 장애인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쓰도록 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나누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완주군 어르신 우유 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해 우유를 후원했다.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맞춤 영양공급을 위해 1400여개의 우유를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개소를 통해 어르신 14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성완 사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경제활성화 및 영양공급이 필요한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결심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작은 나눔으로 사랑과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의 깊은 생각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어르신의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지역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어르신 도시락 제공,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식료품기탁을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